

아부다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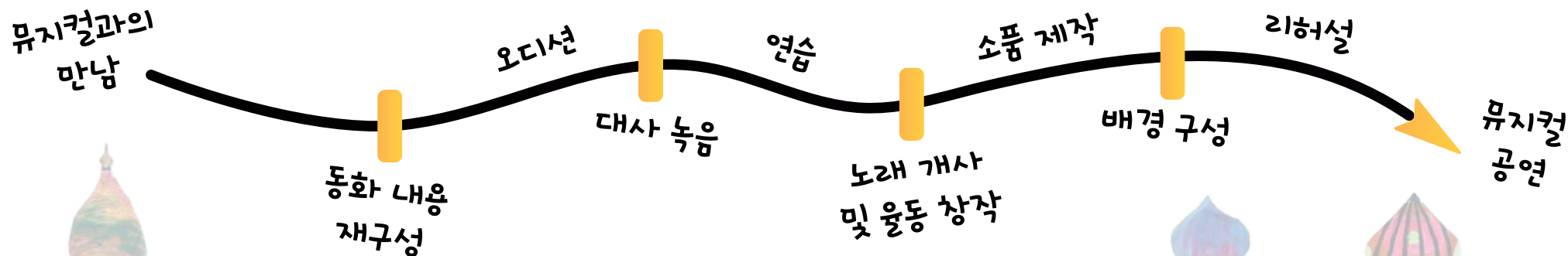
신비한 오솔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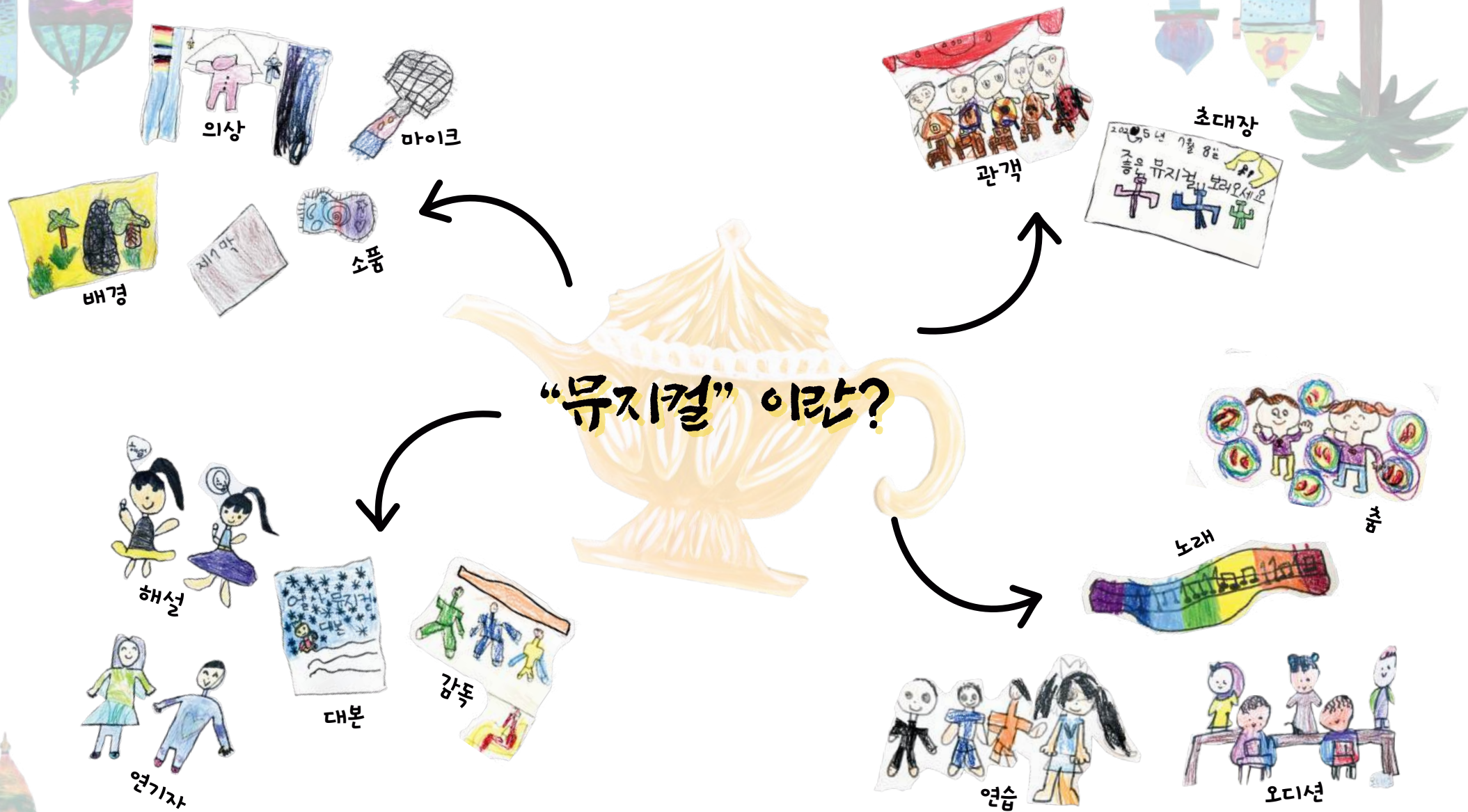
2025. 6. 2. ~ 7. 11. 슬기튼튼 반의 뮤지컬 놀이

“뮤지컬” 놀이의 시작

친구들과 함께 명작 동화를 재구성 하는 튼튼의 뮤지컬 놀이는 우리 원의 전통 있는 교육 과정 활동입니다. 마음튼튼반이었던 작년, 형님들의 공연을 보며 슬기튼튼반이 되면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된다는 것에 아이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졸업한 형님들의 공연 영상을 보며 뮤지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무수히 많은 세계 명작 동화에서 어떤 것을 선정할 지 의논해보며 도서관의 여러 도서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와 지니가 살고 있는 요술램프가 나오는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흥미를 가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뮤지컬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뮤지컬” 놀이 전개 과정





드디어 뮤지컬 놀이를 시작하게 된 친구들! 뮤지컬 놀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졸업한 형님들의 뮤지컬 공연 영상을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무대를 꾸밀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하고,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소품들이 있어야 하며 극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노래와 춤이 있어야 한다면 뮤지컬의 구성요소들을 점차 하나씩 찾아보며 뮤지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으로 뮤지컬 공연을 할까~?

이렇게 뮤지컬과 만나게 된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을 찾아 읽어보고 동화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했습니다.
아이들은 아기돼지 삼형제와 피노키오, 브레멘 음악대 등 여러 도서들을 관심있게 읽어 보았지만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와 파란색 사람인 지니, 공주인 자스민이 등장하는 세계 명작 동화에 가장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후 친구들과의 의논 과정을 통해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뮤지컬 도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팔죽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기 돼지
삼형제가 되면 어떨까?

이 책은 배경이
예쁜 꽃밭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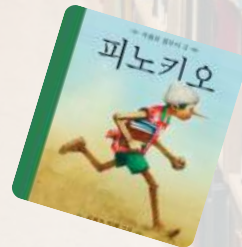
우리가 배경으로
꽃밭을 만들면 엄청
예쁠 것 같아~



램프의 요정 지니는 파란색이고
몸이 엄청 커! 신기하다~



진짜 크다!
내가 고른 걸리버
여행기에도
거인이 나와!



명작 동화 말고
독도 책은 어때요?



독도가 엄청
아름다워요!

내가 동화 속 등장인물이라면?

도서를 선정하자 [알라딘과 요술램프] 이야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아이들은 주말 동안 가정에서 알라딘 영화나 뮤지컬을 보고 와서 책 속의 등장인물에 대해 이야기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니는 무섭게 생겼지만 춤을 잘 춰!”, “자파는 엄청 무섭게 생겼어~”, “자스민은 반짝 반짝한 옷을 입었는데 엄청 예뻐!”, “알라딘은 달리기도 빠르고 높이 잘 뛰어!”, “아부는 귀여운 원숭이더라~?” 하며 각 인물을 특징을 탐색하게 된 아이들은 “만약 내가 00이라면?” 어떨지 또, 어떻게 할지 상상해보며 동화 재구성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자파라면?
알라딘에게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같이 살 거야
-훈-



내가 자파라면
단단한 강철 옷을 입을거야!

내가 지니라면?
내가 소원을 말하고 전부 다
들어줄거야 - 도희-



지니는 위대한 마법사니까~
나는 소원을 엄청 많이
들어줄 거야!



내가 자스민이라면?
요술 램프 주인이 되서
알라딘을 자파에게 보내고
지니를 램프만 가질 거야
-윤우-



나는 반짝이는
요술 램프만
가지면 돼!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는 양보할
수 있어~



알라딘은 조끼만
입고 있어!
배에 근육이 엄청나!!!



내가 알라딘이라면?
나를 따르는 군사를 평생
보내 달라고 지니한테 말할거야
-윤우-



근육이 많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빨리 달리고 싶어!
근육이 많아지는
소원을 빌래~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1등으로 출아!
아프지 않을것이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즐거세요

부자가 되면~?
엄마, 아빠한테
돈을 빌려줄거야!

발차기 많이
잘하게
여유 해주세요

나는 군인이 될 거야!
발차기를 잘하면
적을 다 무찌를 수 있지~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있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만의 요술램프야~ 내 소원을 들어줘!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 되어 바꾸고 싶은 것을 상상해본 아이들은 “내가 요술램프를 갖게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 거야!”, “난 키가 커지게 해달라고 빌래!” 하며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나만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요술램프의 모습을 떠올리며 램프에게 소원을 빌 때처럼 파스넛을 사용해 문지르는 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요술 램프에게 빌고 싶은 소원 한 가지를 정하여 글로도 표현해보며 점차 동화 재구성 놀이에 폭 빠져 들어갔습니다.

지니에게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조금 징그러워~!

지니가 책처럼 무섭게
생기지 않고, 춤도 잘 추고
재미있으면 좋겠어!



자파가 착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

못된 자파에게
집이랑 옷을 다
빼어버리자!

우리가 동화 내용에서 바꾸고 싶은 것은?

램프를 뺏지
않고 같이 나눠서
쓰면 어떨까~?



요술 램프 안에서
살면 심심하니까
요술 책에서 사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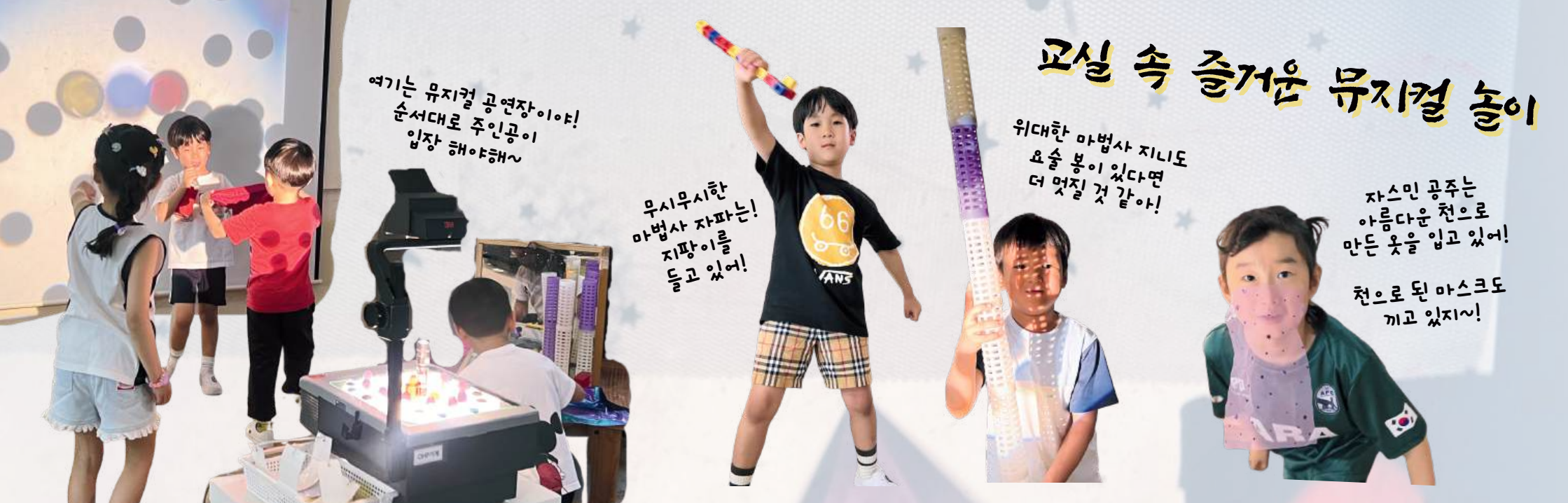
지니를 쌍둥이로
바꾸면 요술램프
안에서 지니가
외롭지 않을 거야~

자파도 착해져서
모두 친구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

지니에게도
친구들을 만들어
주면 좋겠어~

지니가
요술 램프에서
살지 않게 해주자!

기존 동화 내용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을 상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자 아이들은 친구들이 상상한 부분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상상한 대로 내용을 바꾸면 어떻게 될지 예측과 의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들의 [아부다비의 신비한 요술램프] 뮤지컬 내용이 꾸러졌습니다.



뮤지컬에 푹 빠진 아이들의 관심은 교실에서의 놀이로 이어졌습니다. ohp기계가 있는 빛 놀이터에 공연장과 객석을 구성하여 놀이 하고, 자파나 지니에게 필요한 마법 지팡이를 만들기도 하며 자발적인 극놀이가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또, 교실 매체 장에 있는 망사 천을 머리 위에 올리며 아랍사람들을 표현하던 아이들은 테이프를 이용해 마스크도 표현하며 놀이하셨습니다. 하늘하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옷도 광학펜으로 관찰해보며 점차 놀이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저는 자스민役に
지원한 김도희
입니다!

으악!

너무 떨려~!

저는 춤을 잘 춰서
지니역을 하고
싶어요!

위대한 마법사!

나를 부른 사람이
당신인가요~?

저는 용기 있는
알라딘도 하고
싶어요!

내가 뮤지컬에서 맡고 싶은 역할은?

알라딘과 자스민의 사랑 이야기에서 친구들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로 재구성한 [아부다비의 신비한 요술램프] 뮤지컬 등장인물 중에서 자신이 맡고 싶은 역할을 정해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후, 희망하는 역할의 대사와 제스처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오디션을 통해 각자 뮤지컬의 중요한 배역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요술 램프는
내 거야!!!

알라딘과 친구들을
동굴에 가두고 말겠어~!

알라딘역을 맡은
이윤우입니다!

저는 해설을
하고 싶어요!

해설을 하면 마이크를
쓸 수 있어요?!

마이크에 말하니까
내 목소리만 들려!



나의 대사를 녹음해요!

오디션을 통해 정해진 자신의 역할 대본을 받아 연습해보고 극 중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며 대사를 녹음했습니다. 이때 “저는 화를 안 내봐서 화나는 목소리를 모르겠어요!”, “당황한 목소리는 뭡까요...?”하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함께 모여 각 막의 이야기와 상황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교사와 친구들이 예시를 들며 흥내를 내주었고, 이 모습을 보고 이내 자신의 대사에 담긴 감정에 몰입하여 표현했습니다.

불안한 목소리?
내가 잘 할 수 있어!
작게 얘기하면 되지~

나는 대사를 다 외웠어!
예쁜 천들이 정~말
많군요!!!

어서 오세요~!
맛있는 초콜릿이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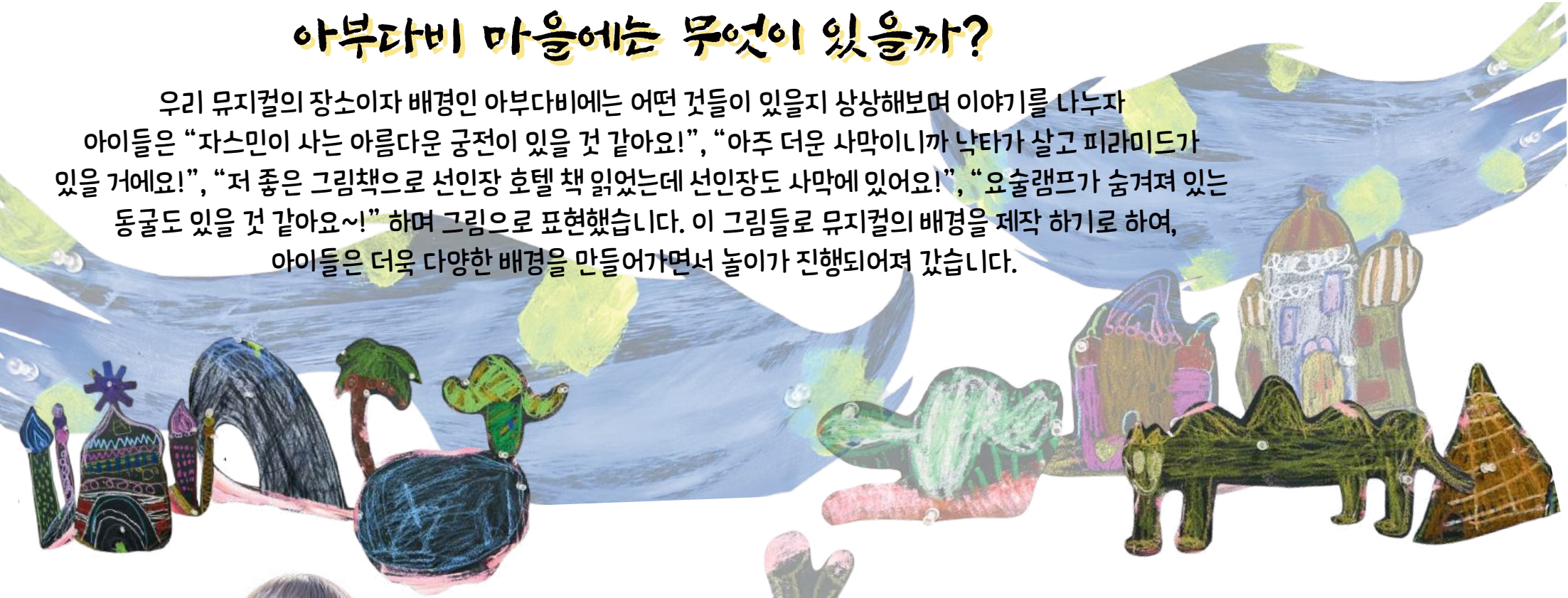
내 목소리가
엄청 떨리네?!

나는 혼자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녹음을 할래!



아부다비 마을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뮤지컬의 장소이자 배경인 아부다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상상해보며 이야기를 나누자
아이들은 “자스민이 사는 아름다운 궁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더운 사막이니 낙타가 살고 피라미드가
있을 거예요!”, “저 좋은 그림책으로 선인장 호텔 책 읽었는데 선인장도 사막에 있어요!”, “요술램프가 숨겨져 있는
동굴도 있을 것 같아요~” 하며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들로 뮤지컬의 배경을 제작하기로 하여,
아이들은 더욱 다양한 배경을 만들어가면서 놀이가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아부다비의
궁전은 지붕 모양이
특이해!

요술램프랑
요술책이 있는
동굴도 있지!

맞아~! 지붕이 완지
동그랗고 뾰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긴 초콜릿이
있었는데~?

아부다비는 사막이니까
낙타가 살고 있을 것 같아~

황금 궁전도 멋지지만!
알록 달록한
궁전도 멋져~

아부다비의
궁전은 알록 달록
할 것 같아!





바닥이 다 사막의 모래야!
건너 갈 수 있는 다리도 있겠지~?

궁전은 울타리 벽
안에 있어! 입구에는
긴 막대 건물도 있지!

아부다비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
건물 모양도 다양하잖!

아부다비 마을을 벽돌로 구성해요!

배경을 만들기 위해 동화책을 다시 살펴보자 아이들은 알라딘과 요술램프 책 속에 그려져 있는
신기하게 생긴 건물의 특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부다비가 속해 있는 아랍에미리트 나라의
건물들과 풍경 사진을 보여 주자 브리코 블록을 이용하여 건물을 입체물로 구성하여 놀이하고,
촛불 모양의 지붕과 길쭉하게 위로 뻗어 있는 건물, 정사각형의 네모난 건물 등을 표현해보며
뮤지컬 배경을 구체화하여 구성해나갔습니다.



아부다비는 사막이 있는
더운 나라니까 건물에
태양 그림이 있을 것 같아~

더우니까 창문이 많겠지?
엘리베이터도 있을까~?



궁전의 문은 엄청
크게 그려!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와야 하니까~



아부다비 시장을 만들어 보자!

브리코 블록과 벽돌 블록, 유니트 블록 등 다양한 블록을 이용해 뮤지컬의 배경을 구성해 본 아이들은
블록으로 만든 배경은 쉽게 무너지고,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다는 점을 놀이를 하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배경에서 쓸 수 있도록 교사는 아이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우드라크를 준비해주었고
여러 색의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입히며 아부다비 시장의 배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옥상이 울퉁불퉁
하게 생겼어!
이 곳으로 알라딘이
도망쳤지~



아부다비에 있는
나무는 야자수 나무야!
키가 크고~ 잎이 엄청 커!



뮤지컬은 노래로 이야기를 말해주!

뮤지컬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노래! 우리가 재구성한 각 막에 필요한 노래를 생각해보고,
모두가 알고 있는 노래의 가사를 내용에 맞게 개사 해보며 놀이했습니다.
또, 개사한 가사에 맞는 동작을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의논하여 동작을
정하여 노래에 맞춰 표현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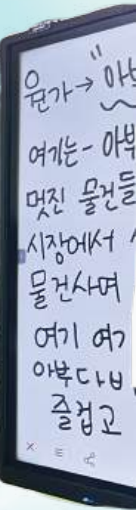
양탄자에 탄 모습은

어떻게 표현해 볼까?

이렇게!

달려가 볼까~?

우리 유치원 원가를 아부다비
시장 노래로 바꿨어~!



요슬램프를 되찾았으니까~?

손을 이렇게 모아볼까?



우리에게 어떤 소품이 필요할까?

재구성한 대본, 내용에 맞춰 개사한 노래, 친구들과 의논하여 정한 물동 등을 연습해보던 아이들은 “요술램프를 만들어야해!”, “자파가 동굴에 가둘 때 큰 돌이 필요해~”라며 우리의 뮤지컬에 필요한 소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찾아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보며 뮤지컬 준비에 한껏 빠져들었습니다.

요술램프는 황금색이야!
우리 반짝 반짝하게
만들어 보자~



맛있는 두바이 초콜릿
가게에 초콜릿을
만들어야 해~



동굴에 있는 바위는~?
갈색이랑 검정색이
섞여 있을 것 같아!



제가 두바이! 라고
영어로 썼어요~



우드락에
물감을 칠했는데
하얀색이 나오네?!



동그란 바위는
굴리면 되겠어~

동굴에 가득히
쌓여있는 금이랑
보석도 필요해!



배경 속 공간, 가게를 만들어 보자!

우리의 뮤지컬 배경인 아부다비 시장에서는 아이들이 정한 [천 가게]와 [초콜릿 가게]가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아이들은 천가게와 초콜릿 가게를 어떻게 표현하였을까요?
어떻게 표현해 볼지 생각을 나누자 아이들은 가게의 모습을 그리자고 제안하여 필요한 그림을 그려 가게를 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스민이 가는 천 가게에는
예쁜 천들이 많겠지~?!

아부다비 시장의
초콜릿 가게에는 사람이
아~주 많이 오니까
지붕이 알록 달록 할 거야~

자파가 천 가게를
엄마로 만든다면~?

왠지 거미랑 벌레들이
살게 될 것 같아!

색연필로 다 색칠하기는
힘드니까~~
물감으로 칠해보자!

천 가게와 초콜릿 가게에는~?

배경 그림을 완성한 아이들은 우리의 그림을 보더니 “근데 가게에 간판이 없어요!”, “자파에게 줄 천이 없어요!” 라며 가게를 구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소품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여 준비하는 과정들을 거치자 아이들의 생각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며, 뮤지컬 공연에 필요한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구성하게 되며 점차 공연 준비가 마무리 되어갔습니다.

바늘 같은 핀으로
천을 꿰으니까
잘 꿰혀!

천 가게 이름은 설아의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찰랑 찰랑으로 정하자!

천이 자꾸 떨어지네~?
핀을 밑으로 꽂아 볼까?!

알라딘이랑 아부가
초콜릿이 다 팔려서
못 먹으니까!

가게 이름은!
소문난 가게!!



마법의 양탄자도 필요해!

요슬램프와 아부다비 시장, 천가게와 초콜릿 가게 등을 구성한 아이들은 뮤지컬의 각 장면에서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양탄자 역을 맡은 친구들이 어디든 데려다 주는 마법의 양탄자를 만들고 싶다고 하였고, 어떻게 만들지 생각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종이로 하면 찢어질텐데...”, “배경을 만든 우드락으로 만들어도 부러지겠죠?”라며 어떤 재료로 만들지 고민의 과정을 격다 교사가 제시해 준 광목천에 서로를 태우고 끌어주며 탐색해보면서 양탄자 놀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데려다
드릴까요~?

미술 하러 가게
책상으로 데려다 줘~

양탄자야~
선생님한테 데려다 줘!

물감을 칠했는데
천이 젖지 않네~?

동굴에 오래있던
양탄자 아니까~?

여두운 색으로
칠해보자!

물을 뿌리니까
물감이 잘 칠해지네?!

여기도 물이 필요해!
물감이 딱딱해지고
있어!



친구들아~ 같이 연습하자!

우리들의 뮤지컬에 필요한 배경과 소품을 드디어 모두 만든 아이들!
프롤로그와 해설, 1막~4막에 자신이 등장하는 순서에 맞춰 입장과 퇴장을 하는 연습을 해보고,
그 동안 교실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것을 떠올려 보며 강당에서 최종 리허설에 들어갑니다.



안녕?
얘들아?



누구세요? 저희를 어떻게 아시죠~?



나 이제!!!
천하무적이다!!!

나는 아부! 너는 알라딘!
우리 둘은 죽마고우야!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비비디 바비디 부!
우리가 소원을
들어 드릴게요~!



어서오세요!
우리는 아부다비
시장의 상인이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에 앉게 되실까?



제 번호는요~?!
우리 가족은
여기 앉는구나!



친한 친구 옆자리가
되면 좋겠다!



보고 뽐으면 안돼!
다들 궁금하고 뽐자~



우리의 뮤지컬 공연을 보러 오세요!

드디어 바로 앞으로 다가온 우리들의 뮤지컬 공연 날! 우리 가족들이 앉아서 관람할 자리를
떨려하며 뽑아보고, 우리들의 뮤지컬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뮤지컬 포스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뮤지컬 제목도 소개해야지!
아부다비의 신비한 요술 램프!!!



시간도 중요해~
우리 6시에 시작하지!



며칠에! 무슨 요일에!
하는지도 알려줘야지~



어디서 공연을 하는지
말해줘야 해~!



슬기튼튼 1반의 [아부다비의 신비한 요술램프] 뮤지컬 공연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단 한번뿐인 특별한 뮤지컬 공연이 한달이라는 기간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유치원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에 그 동안 열심히 뮤지컬 준비를 하였습니다. 학기 초에 개성이 가득했던 우리 아이들이 친밀감을 쌓으며 놀이 주제 대해 깊게 생각하며 의논을 하고, 협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공연을 완성해내는 모습이 무척이나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세인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해보려는 힘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요즘들어 스스로 생각하며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탐구심이 강하며 승부욕과 고집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것 역시 자아가 자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초등 진학 전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슬기튼튼 1반 교사 최다영 -